

서구도서관 개관 30주년 기념 자료집

서구도서관 개관 30주년 기념 자료집

서구도서관 개관 30주년 기념 자료집



인천광역시교육청 서구도서관



서구도서관 개관 30주년 기념 자료집

차례

01	도서관 연혁	04	04	숫자로 보는 서구도서관	
	인사말 (관장)	04		최초 등록 도서	46
	축사 (교육감)	06		연대별 최다 대출 도서	48
		08		도서관 남녀탐구생활	54
02	도서관의 어제와 오늘	14		최고령·최연소·최다기간 이용자	55
	도서관 화보	14		연대별 장서 보유 권수	56
03	도서관과 나	24	05	미래 도서관의 모습은?	
	나를 바꾼 도서관-인터뷰	24		어린이 그림 공모전 작품	58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에피소드	34			
	도서관과의 추억-4컷만화	40			

• •

안녕하십니까.

서구도서관장 박진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 개관 30주년을 맞이하여 의미 있는 자료
집을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1991년 9월 9일에 개관한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은 올해로 30주년
을 맞았습니다. 인천 서구 지역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서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과 평생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또한, 서구도서관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직속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역량을 기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구도서관은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의 소통과 문화의 중심이 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
겠습니다.

올해 서른 살이 된 서구도서관이 오랫동안 품어온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
을 개관합니다. 공간의 제약으로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했던 프로그램과
생애주기별 서비스도 더욱 풍성하고 다양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도서관 이용이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도서관을 믿고 늘
함께해 주시는 지역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급변하는 환
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서관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역주민과 함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장

박진경

• •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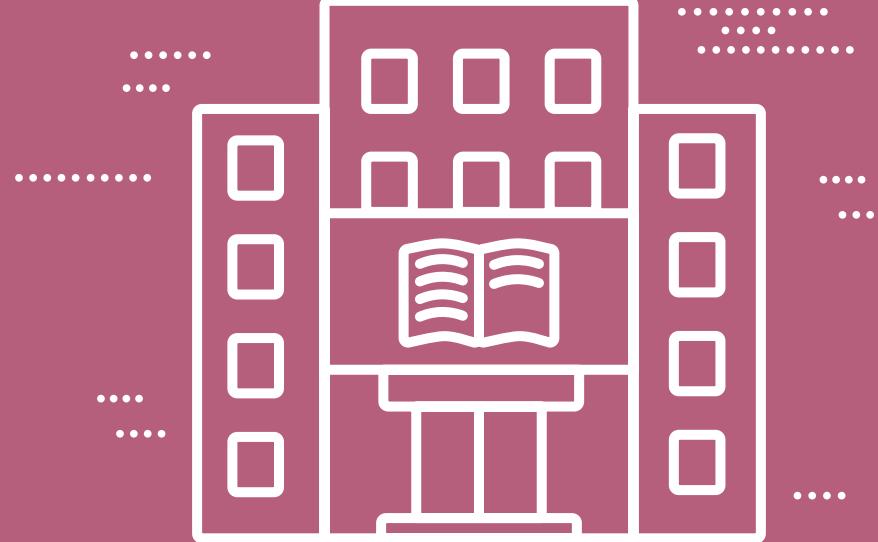
지혜와 지식의 보고(寶庫)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 개관 3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일에 축하의 말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구도서관은 지역주민의 독서문화를 선도하고, 평생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도서관입니다. 서구도서관은 개관 초기부터 개관 목적에 부합하는 아동 대상 독서 교실, 청소년 대상 독서토론, 주민 대상의 인문학 강연 등의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를 위해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북리스타트 운동, 온라인 함께 읽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등을 펼치며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꿔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이 개관할 예정입니다. 미리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과 소중한 공간들을 바탕으로 향후 서구도서관은 영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폭넓은 서비스와 다양한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복합문화공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다해주는 도서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야말로 일선에서 교육과 문화를 창달하는 믿음직한 주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곁에서 독서문화 교육의 중심기관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서구도서관의 개관 30주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서구도서관 개관 30주년 기념 자료집

01

도서관 연혁

서구도서관 연혁

1990년대	1991. 09. 09 개관 1994. 04. 01 국립중앙도서관 지정 시범도서관 지정 1997. 01. 17 지역문고 개설 1997. 10. 01 인천공공도서관 전산망 구축 1998. 02. 16 이동도서관 개설 1999. 08. 01 지역중심 평생학습관 지정 2000년대 2006. 10. 30 디지털자료실 개설 2006. 12. 01 학습동아리 최우수상 수상(인천광역시 교육감 표창) 2008. 12. 31 지식활동 최우수기관상 수상(인천광역시 교육감 표창) 2009. 02. 10 DVD 관외대출 시작 2009. 05. 25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2009. 08. 종합자료실 리모델링(제1·2자료실 통합) 2009. 12. 31 지식활동 최우수기관상 수상(인천광역시 교육감 표창) 2010. 03. 2009년 교육청 성과관리 우수기관 선정 2010. 07. 02 웹접근성 강화 홈페이지 개편 2010. 09. E-BOOK 서비스 개시 2011. 01. 03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시행 2011. 03. 과제지원센터 설치 2011. 12. 16 RFID 시스템 구축 2011. 12. 29 지식활동 우수기관상 수상- 우수상 및 장려상 (인천광역시 교육감 표창) 2012. 11. 오디오북 서비스 개시 2013. 02. 28 한국도서관상 수상(한국도서관협회 표창) 2010년대 2013. 07. 12 디지털자료실 리모델링 2013. 09. 09 도서관 소식지(E.A.S.Y. LIBRARY) 창간호 발간 2014. 03. 01 대출자료 예약서비스 시행 2015. 04. 20 모바일서비스 리브로피아 구축 2015. 12. 30 학습동아리실 및 1층 다목적 공간 설치 2016. 11. 23 청소년 자원봉사 우수터전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2016. 11. 24 공공도서관 협력 「국립중앙도서관장상」 수상 2017. 07. 24 청소년자료실, 스마트열람실, 북카페, 나눔터 등 개설 2018. 08. 31 독서문화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 2019. 01. 30 이동도서관 폐지 2019. 07. 01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시행 2020년대 2020. 01. 한 도서관 한 책 캠페인 시행 2020. 02. 03 스마트도서관 운영 2020. 10. (사) 공공도서관 운영 우수사례 선정 2021. 02. 01 무료택배서비스 확대
--------	--

개관일

도서관명	인천직할시서구도서관
개관일	1991. 09. 09
주소	인천직할시 서구 가좌3동 198번지

설립배경 및 개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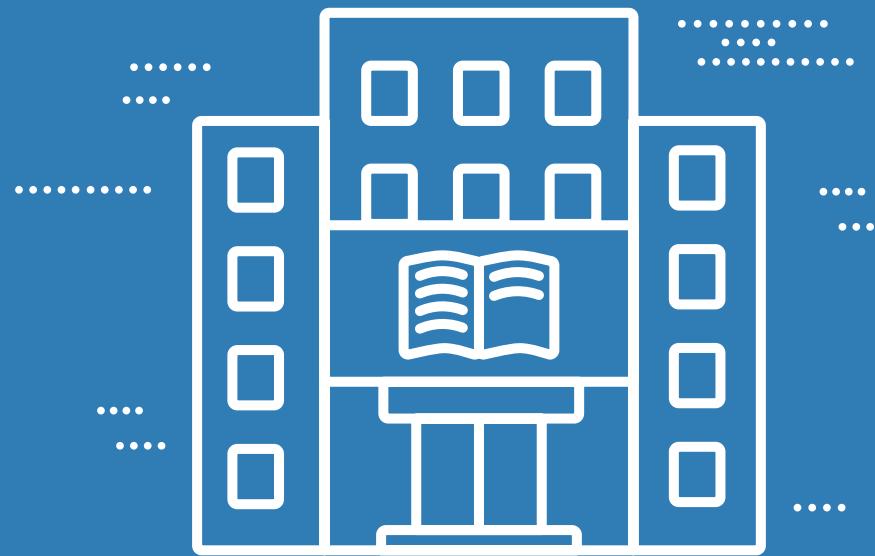
(착공) 인천시교육청은 서구 가좌3동 198번지 일대에 12억 5천여만 원을 들여 1989년 12월에 서구도서관을 착공하여 준공하였다.

(개관)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3동 198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1991년 3월 22일 서구도서관 설치 조례(인천직할시 조례 2494호)에 따라 1991년 9월 9일에 개관하였다. 운영 방침으로는 평생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전개, 정보문화센터의 기능 신장, 독서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독서계층 계발, 직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제고이다.

(조직 및 시설) 조직은 3과 체제로 관장, 서무과, 사서과, 열람과로 편성되었고, 정원은 사서직, 행정직, 기능직 포함하여 32명이었다. 3층의 초현대식 건물로 지어진 서구도서관은 대지 6천6백1십m²(2,000평) 면적 3천1백8m²(942.5평) 지하 1층 지상 3층의 1,068좌석의 일반열람실(제1~제4), 특별열람실(개가열람실, 참고·정기간행물실, 취업정보자료실, 아동열람실), 기타시설로 시청각실, 복사실, 회의실, 휴게실, 사무실, 식당, 기계·전기실 등을 갖추었다.

운영시간은 일반열람실의 경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까지이며, 자료열람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였다. 휴관일은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국경일,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 개관기념일, 특별한 사유로 관장이 지정하는 날이었다.

특색사업으로는 주부취미교실 운영하였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의 교양 증진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서예, 영어회화, 등공예, 꽃꽂이 등 4개 강좌를 개설 운영하여 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서구도서관 개관 30주년 기념 자료집

02

도서관의 어제와 오늘

서구도서관의 과거

• 서구도서관의 현재

개관 당시 사진



개관식



개관 당시 전경



개관 당시 위성사진

현재 사진



서구도서관 전경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
(2021. 10. 개관)



현재 사진

과거 자료실 내/외부, 서가 사진



어린이자료실 입구



어린이자료실 내부



유아방

현재 자료실 내/외부, 서가 사진



어린이자료실 입구



어린이자료실 내부



유아방



종합자료실 입구



종합자료실 내부



서가



종합자료실 입구



종합자료실 내부



서가



(구)어학실



디지털 자료실



열람실



디지털 자료실



열람실-채움터



열람실-E누리터

책을 나누는 도서관 - 독서문화 프로그램

1992년

도서관주간 행사



1995년

독서의 달



1997년

지역문고 개설



1998년

이동도서관 개설



2017년

모두꿈터버스도서관



2014년

길위의 인문학



2009년

야간인문학 프로그램 개설



가좌인문학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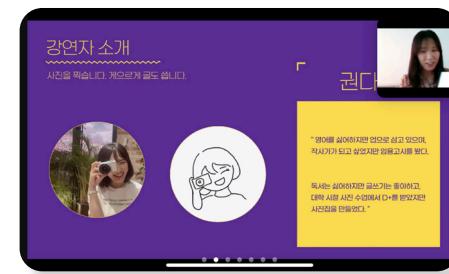
한 도서관 한 책 캠페인
"SNS를 통한 함께 읽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1년



북 리스타트 운동

수요인문학

3.10.~3.24.

동아시아 예술
단원 김홍도 생애·예술
장경성
(서울대학교 미술사
사적과 교과)

4. 14.

심리
마음으로부터 일곱발자국
박현선
(신경판석학자)

5. 12.~5. 26.

영화
4차산업혁명
최광희
(영화평론가)

6. 9.~6. 23.

환경
지구환경위기
남성현
(대량식물학자)

7. 7.~7. 28.

공공도서관인문학릴레이
기후위기
조천호
(한국기상과학원장)

8. 11.~8. 25.

동아시아 신화
소수민족 신화
김선자
(한세대 중국전통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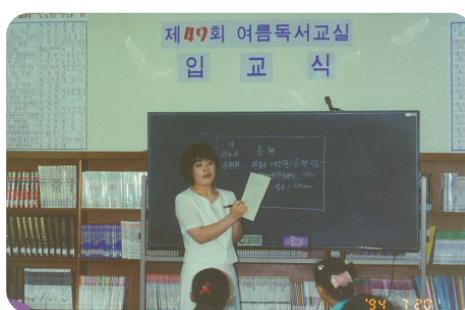
9. 8

심리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
윤정은
(의사)

수요인문학

꿈을 키우는 도서관 - 어린이·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1992년



1996년



2002년



2004년



2011년



2011년



2010년



2010년



2013년



2019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삶을 함께하는 도서관 - 평생학습 · 마을교육공동체

1992년

주부문화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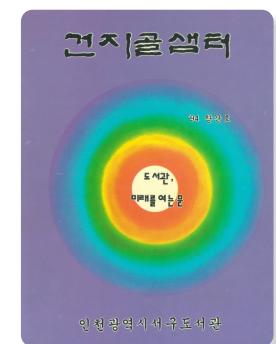
1992년

주부문화교실 중 꽃꽂이 강좌



1994년

1994년 서구도서관 문집,
'건지골샘터' 창간호 발간



문예반(주부독서회) 문집 '해돋이' 제1집 발간 1998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정 평생학습관 운영 1998년

정규 프로그램 중 '머리 미용' 1998년

인천서구 동화 읽는 어른' 모임 구성 2000년

2019년

지역특화(우리마을독서플랫폼)



2018년

서구평생학습축제



2011년

서구마을네트워크 공동주관
<초록장터> 운영



2008년

- 서구청 '교육투자 우선 지역지원사업' 공모 선정
- <좋은 학부모 교실>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기업가학교 기초과정' 운영 (야간 프로그램)

문예창작반 제1집,
'자라나는 시간' 발간



2020년

랜선 강사스킬



2020년

가재울마을교육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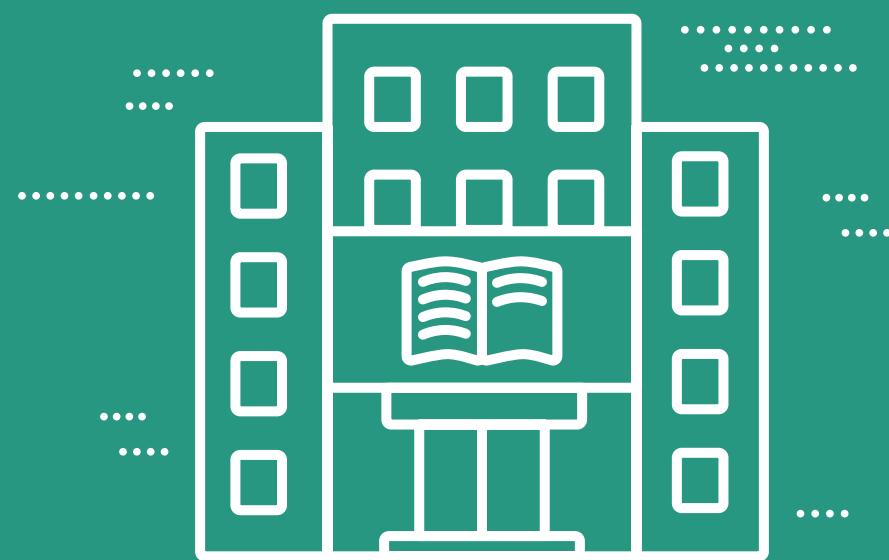
2021년

정규·특별 평생학습프로그램,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공유서가〉

〈쉽게 배우는 스마트폰〉



서구도서관 개관 30주년 기념 자료집

03

도서관과 나



지역 주민과 함께한 도서관

박진경(서구도서관 관장)



“주민들의 열의에 일할 맛이 납니다.”



가좌동의 큰 이슈였던 서구도서관의 개관

90년대 초반, 서구도서관은 저의 세 번째 근무지였습니다. 당시 가좌동의 모습은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부근 공장들의 굴뚝에서 내뿜는 연기, 포도당 냄새, 목재 냄새 등이 가득했습니다. 동네 안쪽은 도로포장이 안 되어 비 오는 날이면 신발에 빨간 흙이 묻곤 했습니다. 조금은 낙후된 가좌동에 도서관이 생긴다는 소식은 가좌동 주민들에게 큰 이슈였습니다. 지금은 크게 자란 서구도서관의 향나무와 나무가 울창한 건지공원을 보면, 그때를 추억하게 됩니다.

개관 당시 서구도서관은 작은 규모의 학교 같았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도서관 주변 화단 정리를 했습니다. 휴관일에는 신문지로 만든 모자를 쓰고 잡초를 뽑았고, 회양목과 교육청에서 가져온 향나무를 도서관 앞마당에 심었습니다. 지금의 가좌동은 학교와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공장이 있던 곳에는 예쁜 카페와 상점들이 들어서는 등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도서관은 최고의 복합문화공간

도서관은 복합문화공간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며,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곳입니다. 독서, 문화, 평생학습 등 공감대가 같은 사람들이 만나 생각을 나누고, 다양한 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도서관을 가까이하면 삶이 더 행복해집니다.

지역주민들의 열의에 힘이 나오!

서구도서관은 올해 30주년이 되었습니다. 가좌동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한 세월만큼 마을과의 유대는 깊어져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도서관을 통해서 성장했다

는 이용자나 자녀 양육의 지혜를 얻었다는 분들을 만나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청소년독서문화프로그램 중 매년 운영하는 ‘인천청소년인문학토론파당’이 있습니다. 올해 9회 차 진행 예정인데, 지역단체와 학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에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구도서관은 수요인문학 등의 다양한 인문학 강좌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시작한 ‘SNS로 책 함께 읽기’라는 프로그램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았으며, 올해에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모집 공고와 동시에 금방 마감되는 것을 보면, 주민들의 관심과 열의가 높다는 것을 느낍니다. 도서관을 사랑하고 가까이하는 우리 주민들이 도서관의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사랑방 같은 도서관

주민들이 기대하는 도서관은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사랑방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 서구도서관은 인문학 릴레이, 북 리스타트, 한 학기 한 권 읽기 등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사업과 공유서가, 책 읽는 가게, 책 동네 산책, 마을 방과 후 학교 등 마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중심기관으로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사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10월에 개관하는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은 다양한 기능이 있는 공간으로, 북카페, 어린이들이 놀면서 배우는 발달놀이실, 동아리실, 자료실, 1인 미디어 창작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가좌동 어린이들의 재미있고 유익한 놀이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구도서관은 주민 여러분에게 늘 열려있습니다.”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도서관이 존재합니다.

서구도서관의 문은 활짝 열려있습니다.

언제든지 도서관으로 오세요.

늘 환영합니다.

인터뷰어 김영아



나의 첫 도서관

오쿠다 가나코(원어민다문화 강사)



서구도서관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일본인 오쿠다 가나코 선생님을 만났다.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에 정착하게 되신 선생님의 삶은 한 편의 동화 같았다. 풍부한 어휘력을 구사하는 한국어 실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선생님은 서구도서관과의 인연으로 한국에서 동화구연가가 되었다. 삶이 도서관이 되고 도서관이 삶의 일부가 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선생님이 가좌동에 정착했던 23년 전에는 한국사회에 다문화가 정이 별로 없었다. 지금은 다문화가정이 해마다 늘어서 ‘다문화가정’이라는 말도 생기고 지역마다 다문화 지원센터들이 있지만, 그때는 그런 곳이 흔하지 않아, 지역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내가 사는 마을 주변에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했던 선생님은 유심히 지도를 살펴보았다. 지도에서 도서관이 눈에 띄었고, 어릴 적 어머니와 도서관에 다녔던 기억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아침마다 저와 남동생을 자전거 앞뒤에 태우고, 집에서 20~30분 거리에 있는 지역 도서관으로 데려다주었어요. 저에게 도서관 이용은 어머니로부터 배운 습관이고 삶이었죠. 우리는 책을 보고 놀다가 점심이 되면 어머니가 준비한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온종일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생님은 어머니가 집에 가자고 찾아와야 저녁이 된 줄 알았다. 도서관에서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를 만큼 즐거웠기 때문이다.

“낯선 한국 땅에서 제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운 곳은 ‘도서관’이었어요. 서구도서관에서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첫걸음을 시작했지요. 서구도서관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선생님은 서구도서관과의 인연에 대해 계속 말을 이어갔다.

“서구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용기를 내어 다른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자연스럽게 대화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배운 것을 떠올려 도서관에 간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다 보니, 20대가 된 제 아이들도 도서관을 습관처럼 이용해요. 도서관에서 책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자녀 양육에도 큰 도움을 받았어요. 어릴 때의 도서관 체험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큰아이가 어릴 때 저도 아이도 한국어와 일본어 이중언어사용으로 인해 혼란을 겪었어요. 한국어 공부에 대해 고민하던 어느 날 도서관 게시판에서 ‘동화구연 포스터’를 보고 바로 수업을 신청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예쁜 목소리로 재미있게 읽어 준 동화와 동요가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몰라요. 동화구연에 푹 빠져버렸지요.”

“그날부터 동화 내용을 냉장고 문에 붙이고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아이와 큰 소리를 내어 동화를 읽었어요. 동화구연을 배우고 집에서도 매일 연습하다 보니 한글에 흥미가 생겼어요.”

그 후로, 선생님과 아이는 함께 성장해 나갔다. 처음엔 그림과 사진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읽었지만, 점점 한글을 능숙하게 읽을 수 있었다. 동화구연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면서 아이도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선생님도 교류하는 동네 주민이 늘어났다. 또한, 도서관에서 수강한 평생 교육프로그램들 덕분에 선생님은 아이의 새로운 소질도 발견할 수 있었고, 아이들도 스스로 학교 숙제 자료를 찾았다.

“아이들과 함께 들었던 동화구연의 영향으로 지금 제가 무지개 별나라 동화구연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학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에서 책을 통해 일본문화도 소개할 수 있어 기쁩니다.”

선생님은 방송통신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취득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에게 선배로서 한글 읽기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구도서관은 다양한 종류의 책이 많이 있고, 깨끗해요. 여름에는 에어컨도 아주 시원한데다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죠. 지역에 사는 주민분들이 서구도서관을 더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더욱 열심히 이용하고 홍보할 거예요. 서구도서관 안에 새로 개관될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에도 부모님들과 아이에게 유익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되길 바랍니다.”

이주민인 오쿠다 가나코 선생님이 한국에 적응하고 동화구연가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서구도서관의 조력이 컸다. 각 지역의 도서관이 지역주민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앞으로도 서구도서관이 ‘지혜의 창고’로서 지역주민에게 좋은 도서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인터뷰어 안나경



가좌동에서 희망을 만들어요

이정미 ('희망을 만드는 마을 사람들' 공동대표)



도서관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환한 웃음을 짓는 '희망을 만드는 마을 사람들' 이정미 대표를 만났다. 이정미 대표는 가좌동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현재도 이곳에 거주하는 가좌동 토박이다.

'희망을 만드는 마을 사람들'은 주민들과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과 청소년들이 마을을 알아가는 활동, 주민들이 마을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는 자치활동을 돋는 단체다. 주민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한다.



서구도서관과의 만남

"서구도서관 개관은 지역 문화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었어요. 서구에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 세워진 것이지요. 참 든든하고 좋았어요."

이정미 대표는 서구도서관이 세워질 당시에는 자기 책상이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서 주로 밥상을 펼쳐 놓고 공부했다며 크게 웃었다. 서구도서관 개관은 일반인에게 구입하기 힘든 전문서적과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시험 기간에 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하려고 꼭두새벽에 일어나 줄을 섰던 일이 기억나네요. 서구도서관이 유일한 학습공간이었는데, 열람실 좌석의 수는 정해져 있었거든요. 아침 6시부터 동네에 길게 늘어선 줄이 꼬리처럼 이어져 있었어요. 열람실에 친한 친구의 자리 를 대신 잡아주려고도 애썼어요. 지금은 대신 자리를 맡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데, 가끔은 그런 일들이 그립기도 해요."

서구도서관 개관 공사현장을 지켜보았던 일, 개관 때 개관 떡을 먹었던 일을 말하는 이정미 대표에게서 도서관 사랑이 묻어났다. 도서관 사랑은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 이정미 대표의 자녀들도 수시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희망을 만드는 마을 사람들'과 '서구도서관'의 인연

"도서관과의 본격적인 인연은 2009년 논어 수업을 준비하면서 시작되었어요. 이 수업은 인천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인문학 강의랍니다."

"2011년에는 초록장터를 통해 서구도서관이 마을 네트워크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고 그 이후 계속 지역 활동을 함께 하고 있어요. '코로나 19'로 초록장터가 잠시 쉬고 있지만, 초록장터는 자원재순환 활동을 확대하는 벼룩장터뿐 아니라, 나눔 마당·초록 마당·문화 마당·체험 마당 등 다양한 활동이 있어요. 깨끗하게 읽거나 오래되지 않은 책을 도서관의 책과 교환할 수 있는 나눔 도서 행사도 진행했어요. 이 행사를 통해 책 나눔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생겼는데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좋겠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이런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은 도서관을 더 친근하게 여기거든요."

서구도서관은 2011~12년에 가좌동 지역에서 '청소년 인문학동아리' 활동을 돋는 데도 앞장섰다. 도서관 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인문학 콘서트 등을 통해 역사교육을 받고, 유명한 작가님도 초청할 수 있었다고 한다.

'청소년 인문학동아리' 활동은 2013년 '청소년 인문학 토론회'까지 이어졌고, 지금까지 인문학이라는 연결고리로 도서관과 마을이 교류하고 있다.

마을에서 '서구도서관'의 가치

"마을은 주민들이 연대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돋는 곳인데 도서관이 언제나 앞장서서 마을공동체, 마을 교육공동체를 위해 애써 주셨어요. 주민들에게 공간을 내어 주고 일손과 재정지원도 아끼지 않았죠."

"서구도서관은 열린 마음으로 인문학 마을 만들기와 독서문화 형성에도 앞장섰습니다. 정말이지 주민으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는 도서관입니다."

이정미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주민이 도서관과 함께하는 이상적인 삶을 엿볼 수 있었다. 도서관을 함께 일구는 이정미 대표와 같은 지역주민이 더욱 늘어나, 30주년을 맞이한 서구도서관이 지역주민과 함께 100주년을 맞는 도서관이 되길 기대한다.

인터뷰어 윤인옥



지역주민들의 지식, 문화, 체험의 공간 - 도서관

조성숙(교사)



햇살 따사로운 봄날, 서구에 있는 가현중학교에서 3학년 부장교사로 근무하는 조성숙 선생님을 만났다. 해맑은 미소를 지닌 쾌활한 선생님과의 인터뷰는 매우 즐거웠다. 선생님은 도서관과 많은 인연이 있었다. 전공 역시 사범대 문헌 정보 교육학이었다.

“가좌여중 가까이에 있는 서구도서관이 제 공부 장소였어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공부할 때는 도서관 문 여는 시간에 와서 공부하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와서 다시 문 닫는 시간 까지 공부했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는 온종일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선생님은 자녀들이 어릴 때는 함께 서구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영화도 보며 몇 시간씩 보냈다고 한다. 어린이자료실이 도서를 교과와 연계하여 분류해 놓아서 이용하기 편했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도서관을 이용해야 도서관을 친근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도서관은 책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얻는 곳에서 그치지 않고, 각종 강좌나 문화 강연 등을 열어 이용자들이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어요. 사회의 변화에 맞춰 ‘지역주민과 문화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많은 성장을 해왔어요. 도서관이 점점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되어가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또한 학생들을 데리고 서구도서관이 개최하는 ‘인문학 토론회’에 여러 해 참여하고 있다.

“처음 대회에 참가한 계기는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해주고 싶어서였어요. 요즘 학생들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쌓아 자신의 철학을 세우고, 다른 학생들과 다양한 사회활동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생들과 지역 학교 연합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서구도서관이 주최하



는 ‘인문학 토론회’에 저는 강사로 참여하고, 우리 학생들도 몇 년째 참가하고 있습니다.

제 자리 뒤에 있는 책장에는 아이들이 읽을 만한 책들이 늘 준비되어 있어요. 원하는 학생들에게 책을 빌려주는데, 가끔 어떤 학생에게는 책을 권하기도 하고, 책 내용에 관해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독서를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는 장이 생기는 것이지요. 제가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관심 표현의 하나입니다.”

교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작은 응답이나 변화를 보일 때라고 한다.

“저의 진심을 알아주어 조금씩이라도 바뀌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쁘고, 교사로서 자긍심이 생깁니다.”

현재의 관심사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선생님은 ‘공부’라고 대답했다. 지금껏 열심히 일을 해왔지만, 이제는 자기 성장을 위한 시간도 가지고 싶어 대학원에 입학했고, 각종 연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서구도서관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프로그램이 알차요. 앞으로 가재울어린이도서관이 완공되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서구 대표의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해요. 서구도서관이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문화와 세계를 소개하고, 각종 정보도 얻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교육과 체험의 개방적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외 계층의 학생들이나 주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세요. 도서관은 이용하는 곳입니다. 자주 가서 책도 빌리고, 강좌도 듣고, 영화도 보고, 강연도 듣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몸소 체험하세요. 우리가 이용할수록 도서관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인터뷰하는 내내 선생님의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신뢰도 읽을 수 있었다. 이번 인터뷰는 도서관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인터뷰어 정미례



책은 사고를 위한 음식

심완섭



시니어타운 ‘마리 스텔라’ 지하의 북카페는 상주 의사들의 분주한 발걸음과 어르신들의 느긋한 지팡이 소리가 교차하는 공간이다. 서구도서관 최고령 이용자인 93세 심완섭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국전쟁과 미국 유학

국내 최고 대학에서 꿈을 키우던 그가 한국전쟁에 참전할 당시의 나이는 스물둘이었다. 그는 마흔 명 남짓 선발된 전체 통역 장교 가운데 차석으로 임관하였다. 군인의 신분으로 미군 고위 장교, 수하의 한국 병사들과 남부 전선을 오가면서도 그는 배움의 뜻은 놓지 않았다.

“제가 보좌하던 사람들이 대개 장성들이니까, 영어를 쓸 때도 말을 정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영사전을 항상 곁에 두는 습관이 생겼어요.”

전쟁 이후, 그는 통역장교 이력을 내세워 국내 기업에 취직했다. 직장생활을 하던 그에게 학업에 대한 갈망을 풀 기회가 서른셋에 찾아왔다. 미국 땅을 밟은 그는 전쟁 당시 모시던 한 장군의 추천으로 미 유수 대학에서 MBA 과정까지 마쳤다. 그는 꾸준한 공부의 결실로 낮선 대륙에 보란 듯이 정착하였으며, 이후 미국의 대형 백화점의 연구 개발 부서에서 일하다 은퇴하였다.

다시 한국으로

“Ivory tower(상아탑)라는 말 알아요? 코끼리는 죽기 전에 자기 조상들이 묻힌 곳을 냄새로 기억해서, 한군데로 모여 마지막을 보낸다고 해요.”

해외 교민 1세대로서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는 많은 것을 얻었다. 명망 높은 대학의 학위, 변듯한 직장. 그러나 살아갈 날이 길지 않다고 느꼈을 때, 그는 코끼리가 그러하듯 여생

을 모국에서 보내고자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다.

도서관과 독서

“한국에 와서는 건강상의 문제로 도서관을 자주 갈 수는 없지만, 항상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문학이나,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등의 작품을 좋아하지요. 최근에는 A. J. 크로닌의 ‘천국의 열쇠’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중국으로 간 가톨릭 신부의 이야기를 그린 소설인데, 비종교인인 내게도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주었어요.”

90세를 넘은 고령에도 꾸준히 책을 읽는 그는, 지인의 소개로 서구도서관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다.

“서구도서관은 깔끔한 4층 건물에, 시설도 잘되어있어 처음부터 흡족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종종 이용하던 영문 백과사전이 없는 게 아쉽지만(웃음), 공간 규모와 비교하면 장서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가 방에서 가져온 낡고 두꺼운 옥스퍼드 영영사전은, 군데군데 밑줄이 쳐져 있어 오랫동안 곁에 두고 사용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Food for thought’라는 관용어가 있습니다. 실제 쓰이는 의미는 ‘숙고해 볼 만한 것’ 정도지만, ‘사고를 위한 음식’이라고 직역하면 더 멋진 말이 됩니다. 책은 정신 수양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철학을 확립시켜 주며,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하지요. 그런 점에서 책이야말로 ‘진정한 사고의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요즘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주민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다. 기초적인 영어밖에 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점점 어려운 내용을 배워가는 것을 보면 뿌듯하다고 한다. 또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을 쓰고 있다. 끝까지 써서 한 권의 책을 완성하는 것이 그의 목표이다.

전란의 한복판에서 청년기를 버텨내고, 이역만리 타국에서 성공 신화를 일궈낸 그의 열정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우리 동네 영어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담긴 자서전을 준비하는 작가로서의 심완섭 씨를 응원하며, 앞으로도 그가 매해 서구도서관 최고령 이용자 기록을 경신하길 기대해 본다.

인터뷰어 정연욱

내 청춘의 한 페이지 서구도서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도서관 나들이

백*분

큰아이는 현관문이 열리면 앞으로만 뛰어나가고, 작은 아이는 서너 발 걷다가 넘어지니 나갈 때는 두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다녀야 했다. 아이들은 밖에 나오면 햇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짙어질 때야 집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다. 큰애가 4살 작은애가 3살 때 처음으로 서구도서관에 갔다. 책을 읽히려는 목적보다는 활발한 아이들이 잠시나마 차분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그러면서도 내심 아이들이 책을 보면서 마음과 생각이 자라나기를 바랐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줘야 했지만, 아이들은 곧 다른 이들을 따라서 조용히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일정이 바쁜데도 아이들이 책에 빠져 움직이질 않아 한참을 기다릴 때도 있었다.

아이들이 직접 골라 읽은 첫 책은 한반도의 공룡 이야기인 『점박이 홀로서기』, 『숲속의 제왕 점박이』였다. 한번은 『아카시아 파마』라는 동화책을 보고는 풀물이 잔뜩 오른 5월 새순의 아카시아 잎을 따다가 아이들에게 파마해 준 적이 있었다. 정말 아카시아 향이 나는 파마가 되었다. 아카시아 잎을 떨 때도, 머리를 당기며 파마를 할 때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가만히 기다렸던 아이들에게 멋진 추억이 생겼다. 작년에 큰 애는 서구도서관에서 진행한 <2020 지역과 함께 하는 마을 방과후 학교>를 참여하여 자신의 책을 만들어 왔다.

아이들은 앞으로도 한발씩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서구도서관을 디딤돌 삼아 자신을 돌아볼 여유를 가지고 삶의 지혜를 찾길 바란다.

김*정

2008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가좌동으로 이사를 왔다. 취업이 생각보다 빨리 안 되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불규칙한 생활이 이어졌고, 건강도 나빠졌다. 걷기라도 하려고 동네를 돌다가 서구도서관을 발견했다. 도서관에서 책과 사람들을 구경하고, 도서관 앞 식당에서 밥도 한 끼 먹으니 힘이 났다.

그 후, 매일 아침 눈뜨면 서구도서관에 무작정 갔다. 도서관에 있는 시간이 점점 늘면서 규칙적인 생활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렇게 한두 달 정도 책을 읽고 난 후 취업 공부도 시작하게 되었다. 공부하다 힘들면 자료실에 와서 책을 읽으며 쉬다가 열람실로 돌아갔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취업을 했다.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에도, 서구도서관을 이용하던 습관이 남아서 도서관을 자주 이용했다. 최근엔 ‘코로나 19’로 인해, 1년 넘게 도서관을 가지 못해 서 전자책을 읽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책 냄새 가득하던 도서관이 너무 그립다. ‘코로나 19’가 종식되면 내 청춘의 한 페이지인 서구도서관에 아이와 손을 잡고 방문하고 싶다.

도서관에서의 설렘, 추억

김*실

제가 서구도서관에 다닌 지는 벌써 27년 정도 됩니다. 중학생이 되고 공부를 하기 위해 친구와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그 시절 서구도서관의 열람실은 남녀 구분이 있었고, 성인 열람실도 별도로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남자 열람실과 성인 열람실이 궁금했고, 나도 얼른 커서 성인 열람실에 가 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남녀 통합 열람실로 바뀌고 성인 전용 열람실도 없어져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남녀 통합 열람실로 바뀐 후, 제 도서관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생겼습니다. 시험 기간에 잠시 열람실을 비웠다가 돌아오니, 누군가 음료수를 제 책상 위에 놓고 갔던 일은 지금도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설레는 추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서구도서관에 저와 같은 추억이 하나쯤 있지 않으실까요?

오늘도 도서관!

박*선

중학생이 되어 처음 간 도서관에는 고등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직 철부지였던 저와 제 친구가 도서관 책상에 낙서하자 고등학생 언니들이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저에게 조용한 도서관은 재미가 없는 따분한 장소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다시 한번 도서관에 방문했습니다. 남들을 따라 문학상을 받은 책들을 몇 권 읽었지만, 아직 어렸던 저는 책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금세 도서관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직장생활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친구의 추천으로 서구도서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업도 듣고, 자격증도 따고,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도서관에 올 기회가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다시 책 읽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책을 통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과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은 내 친구’라는 말도 실감했습니다.

지금은 집 근처에 서구도서관 같은 좋은 도서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일찍 도서관에서 책과 만났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남아있습니다.

인연

어*영

서구도서관 개관 30주년을 축하하면서, 12년 전 따뜻한 봄날 저와 서구도서관의 첫 번째 인연을 떠올려 봅니다. 처음 도서관 근무를 했을 때, 저는 도서관이란 단순히 책을 대여하거나, 공부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도서관의 정확한 역할을 알지 못한 채 다른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3년 전 초여름, 저와 서구도서관의 두 번째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대와 설렘을 안고 자료실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도서관은 지역의 여러 세대가 어우러진 곳이며 다양한 활동

을 하는 열린 공간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구도서관의 3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힘찬 발걸음을 이어 나가길 응원합니다. 서구도서관과 소중한 인연이 계속되어서 한없이 기쁘게 생각하고 조금이나마 저도 도서관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의 러닝메이트, 서구도서관

이*경

서른한 살의 나는 기간제 교사였다.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못한 채 졸업했고, 그 후 7년간 일에만 몰두하다가 서른한 살을 맞이했다. 기간제 교사로 가장 괴로웠던 일은 계약이 끝나면 내가 맡은 아이들과 떨어져 다른 학교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나는 다시 임용고시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마침 내가 근무했던 학교 옆에 서구도서관이 있었다. 7년 만에 가 본 도서관에는 나처럼 임용고시에 도전하는 사람, 공시생, 중고등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중 머리가 하얗게 센 어르신들이 공부에 몰두하는 모습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나의 20대를 반성하게 했다. 그 날 이후, 나는 퇴근 후 매일 서구도서관에 가서 문이 닫히는 10시까지 공부를 했다.

처음 한 달은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점점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이 늘었고 정해진 공부량을 채우고 도서관을 나온 날에는 인생을 알차게 산 것 같았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늦가을이 되었고 시험에 임했지만, 현실은 1차 불합격이었다. 불합격을 확인한 후 눈 내리는 서구도서관의 풍경을 보며 속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다. 기간제 계약만료로 아직 준비도 해야 했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집중력 부족과 기본개념 소홀로 불합격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몇 년 후 최종합격이라는 결실을 보았다.

서구도서관은 나의 러닝메이트였다. 합격을 위해 애쓰는 나와 함께 걷고 뛰면서 공부법, 자세, 마음가짐, 가장 중요한 공부습관까지도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보여줬다. 지금도 서른한 살의 나처럼 서구도서관과 함께 긴 레이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분들에게도 나처럼 최종합격이라는 선물이 도착하기를 마음으로 기원한다.

연 서포터즈

소감문

정미례

서구도서관 30주년 기념사업의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배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지역주민이 도서관을 더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한 추억은 오래 기억에 남을 듯합니다.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도서관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기길 기대합니다.

김영아

처음 '연 서포터즈'를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서구도서관 직원이 된 후였다. 직원으로서 민원처리를 위해 도서관 홈페이지를 수시로 열어보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다. 도서관에 도움도 되고, 자기계발도 하자는 취지에서 서포터즈로 지원하게 되었다. 서포터즈 1기에서는 '나를 변화시킨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인터뷰 대상자를 정해 취재하고 글을 작성했다. 인터뷰하면서 취재에 응해주신 많은 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도서관을 사랑하는 분들의 좋은 추억에 나도 함께 공감할 수 있었다. 2기에서는 사진 등 서구도서관에 관련된 많은 자료를 분류했다. 서구도서관에서 지금까지 참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내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 감사한다.

연(緣)서포터즈

「서구도서관 개관 30주년 기념 자료집」의 발간을 돋기 위해 모인 주민 참여단이다. 연(緣)은 '마을과 서구도서관의 인연'을 뜻한다

윤인옥

여행지의 정보를 얻기 위해 도서관에 들렀다가 색다른 길에 들어섰다. '연 마을과 이어지다'에서 사진 강의와 글쓰기 강의를 들으면서 서구도서관의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했다. 이 과정을 통해 나에게 도서관이 '독서의 공간'에서 '체험의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또 도서관을 좋아하는 많은 이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도서관을 사랑하는 이들의 삶 또한 행복하게 느껴졌다. 서포터즈 활동에 감사한다.

정길숙

우연히 도서관 홈페이지를 검색하다가 도서관 30주년을 맞아 서포터즈 2기를 모집한다기에 호기심에 지원했다. 간단히 설명을 듣고 서구도서관 사진들을 행사별, 연도별, 프로그램별로 분류하였다. 주제가 같은 여러 장의 사진 중 가장 좋은 것을 뽑아 정리하는 일이었다. 서포터즈는 해마다 열린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에 놀라기도 하고, 분류를 어떻게 할지 의논도하면서 재미있게 활동했다. 도서관에 우리들의 활동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본래 한 팀이었던 것처럼 긴밀하게 움직였다. 함께 소통하면서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이 기뻤다. 이번처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활동을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 함께해 준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서구도서관의 무궁한 발전을 바란다.

도서관과의 추억 - 4컷 만화

@U-juya

일본만화 - 김*아



직원분은 친절한 것 뿐이었는데 혼자 만명해서 한동안 도서관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



밀담 - 성*



그 후로 우리는 사서님 몰래 소곤소곤 밀담을 나눴다



때아닌 도켓팅 - 최*선



→서구도서관 열람실, 노트북 사용할 수 있음!
E-누리터를 차지하기 위해 세상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도 거른 채 서구도서관을 향해 걷는다



매일 같이 설렘 반, 긴장감 반 속에 일어나자마자 서구도서관에 접속해 자료실 열람을 한다
원하는 자리가 공석이길 원하는 자리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길

아, 내가 원하는 자리는 누군가의 것이 되었구나 오늘도 도켓팅은 실패로 돌아갔다



도서관에서 - 고*미



영화 DVD 보고 여유롭게 시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좋네요



디자실*에서 컴퓨터 이용하니 편해요
디지털자료실의 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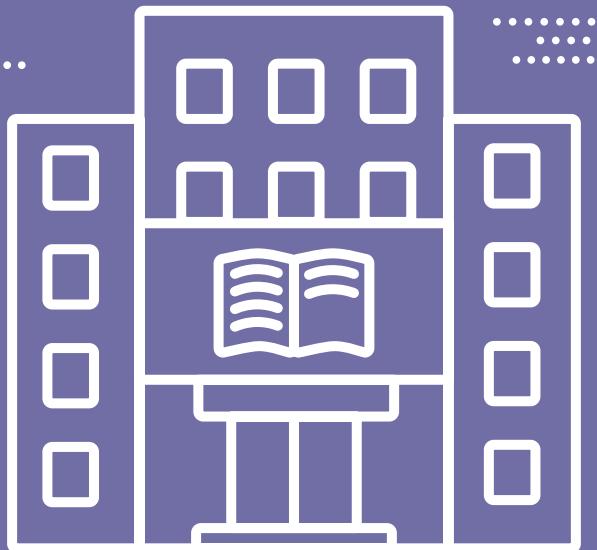
요즘은 매일 가네요!





04

숫자로 보는 서구도서관의 변화



서구도서관 개관 30주년 기념 자료집

최초 등록번호 도서

표제 및 사진 자료



연대별 최다 대출 도서

대출 도서 순위(일반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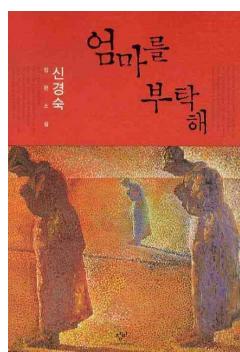
통계
기간

2000년 1월 ~ 2009년 12월 대출 1회 이상

통계
기간

1991년 9월 ~ 1999년 12월 대출 1회 이상

순위	서명	저자	발행자	청구기호	자료실	비고
1	절정세가 : 서효원 장편무협소설. 1	서효원	서울창작 패밀리	813.6-서효원 절-1	[서구]제적	
2	십밀야 : 일주향 장편무협소설. 1	일주향	서울창작 패밀리	813.6-일주향 십-1	[서구]제적	
3	자객무 : 서효원 장편 무협소설. 1	서효원	서울창작 패밀리	813.6-서효원 자-1	[서구]제적	
4	三國志. 1 : 도원에 피는 의	나관중 지음, 이문열 옮김	민음사	823.5081-나 관중삼1-1=2	[서구]제적	
5	절정세가: 서효원 장편무협소설. 2	서효원	서울창작 패밀리	813.6-서효원 절-2	[서구]제적	



순위	서명	저자	발행자	청구기호	자료실	비고
1	이드 : 이드의 중원 귀 환 대작전. 1-14	김대우 지음	북박스	813.6-김대우 이-1	[서구]제적	
2	비뢰도 : 검류흔 장편 신무협 환타지 소설. 1-14	검류흔 지음	명상	813.6-검류흔 비-1	[서구]제적	
3	다크문 : 윤현승 판타 지 장편소설. 1	윤현승 지음	태동 출판사	813.6-윤현승 다-1	[서구]제적	
4	비뢰도 : 검류흔 장편 신무협 환타지 소설. 1-14	검류흔 지음	명상	813.6-검류흔 비-2	[서구]제적	
5	신무. 1-7	김형준 지음	자음과 모음	813.6-김형준 신-1	[서구] 지하보존	

통계
기간

2000년 1월 ~ 2009년 12월 대출 1회 이상

순위	서명	저자	발행자	청구기호	자료실	비고
1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지음	창비	813.6-신경숙 엄	[서구] 종합자료실	
2	파피옹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뫼비우스 그림, 전미연 옮김	열린책들	863-베르베파	[서구] 종합자료실	
3	위저드 베이커리	구병모 지음	창비	청 813.6-구병 모위	[서구] 청소년자료실	
4	구해줘	기욤 뮤소 지음, 윤미연 옮김	밝은세상	863-뮈소, 구1	[서구] 종합자료실	
5	용의자 X의 헌신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양억관 옮김	현대문학	833.6-히가시 용=3	[서구] 종합자료실	

연대별 최다 대출 도서

대출 도서 순위 (아동도서)

통계
기간

1991년 9월 ~ 1999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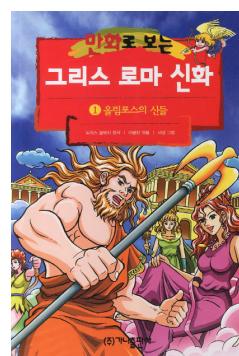
순위	서명	저자	발행자	청구기호	자료실	비고
1	팔방이 만화 일기	임웅순 지음	대교출판	JU 816-임웅순 팔	[서구]제적	
2	금방울전	신은균 구성	능인	JU 813.5-신은 균금	[서구]제적	
3	장국진전	이만수 구성	능인	아 813.5-이만 수장	[서구]제적	
4	말괄량이 길들이기	셰익스피어 저, 박종관 구성	능인	아 843-셰익스 말1	[서구]제적	
5	(깔깔) 탈무드. 2	박종관 구성	능인	아 813.5-박종 관탈-2	[서구]제적	



통계
기간

2000년 1월 ~ 2009년 12월

순위	서명	저자	발행자	청구기호	자료실	비고
1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3	토머스 불핀치 지음, 홍은영 그림	가나 출판사	JU 219.21-불 핀치그-3=3	[서구]제적	
2	혼자 있지 마!	이만수 지음	글동산	JU 818-이만수 흔	[서구]제적	
3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1	토머스 불핀치 지음, 홍은영 그림	가나 출판사	JU 219.21-불 핀치그-1=2	[서구]제적	
4	(위기일발) 최악의 상황에서 탈출하라	최덕희 글, 권찬호 그림	글송이	JU 400-최덕희 최	[서구]제적	
5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6	토머스 불핀치 지음, 홍은영 그림	가나 출판사	JU 219.21-불 핀치그-6	[서구]제적	



연대별 최다 대출 도서

통계
기간

2010년 1월 ~ 2021년 6월

순위	서명	저자	발행자	청구기호	자료실	비고
1	이상기후에서 살아남기. 2	곰돌이CO 글, 한현동 그림	미래엔아 이세웅	JU 408-서바이 아-24	[서구] 어린이자료실	
2	정글에서 살아남기. 2	코믹컴, 류기영 글, 네모 그림	코믹컴	JU 408-서바이 코-2	[서구] 어린이자료실	
3	인체에서 살아남기. 2	곰돌이CO 글, 한현동 그림	미래엔아 이세웅	JU 408-서바이 아-26	[서구]제적	
4	자연사 박물관에서 살아남기. 1	곰돌이CO 글, 한현동 그림	미래엔아 이세웅	JU 408-서바이 아-31	[서구] 어린이자료실	
5	남극에서 살아남기	코믹컴 글, 문정후 그림	코믹컴	JU 408-서바이 아-12=3	[서구]제적	



대출DVD 순위(디지털자료실)

통계
기간

2009년 1월 ~ 2021년 6월

순위	등록번호	제목	감독	제작사	자료실	비고
1	AVF000007119	해리포터와 불의 잔	마이크 뉴웰	워너브러더스	[서구] 디지털자료실	
2	AVF000007831	벼랑 위의 포뇨	미야자키 하야오	대원미디어	[서구] 디지털자료실	
3	AVF000008452	토이 스토리3	리언 크리치	월트 디즈니	[서구] 디지털자료실	
4	AVF000007861	업	피트닥터, 밥피터슨	월트 디즈니	[서구] 디지털자료실	
5	AVF000009436	이웃집 토토로	미야자키 하야오	대원미디어	[서구] 디지털자료실	
6	AVF000004769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미야자키 하야오	대원미디어	[서구]제적	
7	AVF000007860	시간을 달리는 소녀	호소다 마모루	CJ ENM	[서구]제적	
8	AVF000008479	해리포터와 혼혈 왕자	데이빗 예이츠	워너 브러더스	[서구] 디지털자료실	
9	AVF000003610	토이 스토리	존 래스터	월트 디즈니	[서구] 디지털자료실	
10	AVF000005326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	크리스 콜럼버스	워너브러더스	[서구]제적	

도서관 남녀탐구생활

최고령·최연소·최다대출 이용자

남자 성인 최다 대출 순위 / 통계 기간: 2016년 1월 ~ 2021년 6월

순위	서명	저자	발행자	청구기호	자료실	비고
1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김영사	909-하라리사	[서구] 종합자료실	
2	太白山脈(태백산맥)	조정래	해냄	813.6081-조 정래태	[서구] 종합자료실	
3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833.6-히가시 나	[서구] 종합자료실	
4	채식주의자	한강	창비	813.7-한강,채	[서구] 종합자료실	
5	정글만리	조정래	해냄	813.6-조정래 정	[서구] 종합자료실	

최고령·최연소 이용자

2021년 7월 31일 기준 최고령 이용자

(단, 최근 2년간 대출 또는 반납 이력이 있는 회원 중에서만 집계)

최고령 이용자

- 성명: 심** 어르신
- 생년월일: 1930. 5. 5.

최연소 이용자

- 이름: 유** 어린이
- 생년월일: 2020. 10. 16.

여자 성인 최다 대출 순위 / 통계 기간: 2016년 1월 ~ 2021년 6월

순위	서명	저자	발행자	청구기호	자료실	비고
1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833.6-히가시 나	[서구] 종합자료실	
2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민음사	도서관 813.7- 조남주팔	[서구] 종합자료실	
3	채식주의자	한강	창비	813.7-한강,채	[서구] 종합자료실	
4	언어의 온도	이기주	말글터	828-이기주언	[서구] 종합자료실	
5	미움 받을 용기	기시미 이치로	인플루엔셜	189-기시미미	[서구] 종합자료실	

이용자 대출 최다 순위 / 통계 기간: 1991년 9월 ~ 2021년 6월

순위	대출자번호	이름	직급명	대출권수
1	1230041100****	최*영	60대(여자)	4349
2	1230041100****	박*주	50대(여자)	3723
3	1230041200****	정*숙	60대(여자)	2910
4	1230041100****	김*성	50대(남자)	2738
5	1230041800****	최*일	50대(남자)	2699

연도별 장서 보유 권수, 이용자 수 변화 통계

1. 연도별 자료(도서+비도서) 수집 현황(구입+기증)

단위: 권

연도	장서수
1991	10,761
1992	5,037
1993	10,734
1994	10,716
1995	2,436
1996	8,405
1997	17,903
1998	20,888
1999	13,670
2000	10,422
2001	8,467
2002	11,073
2003	13,987
2004	12,782
2005	12,007

연도	장서수
2006	8,711
2007	7,139
2008	7,585
2009	12,088
2010	13,856
2011	13,951
2012	12,861
2013	13,997
2014	15,562
2015	15,302
2016	13,812
2017	13,891
2018	13,033
2019	13,918
2020	13,585

2. 연도별 소장자료 보유현황(도서+비도서)

단위: 권(점)

연도	장서수
1991	10,761
1992	15,798
1993	26,532
1994	37,248
1995	39,684
1996	48,089
1997	65,992
1998	86,880
1999	100,550
2000	110,972
2001	126,781
2002	142,120
2003	158,418
2004	173,713
2005	190,027

연도	장서수
2006	196,890
2007	202,479
2008	203,546
2009	207,771
2010	207,954
2011	224,572
2012	235,876
2013	242,340
2014	258,029
2015	261,294
2016	267,698
2017	268,139
2018	274,928
2019	280,211
2020	276,299

05

「미래 도서관의 모습은?」

어린이 그림
공모전 작품



김*이(부곡초3)_무엇이든 찾아주는 로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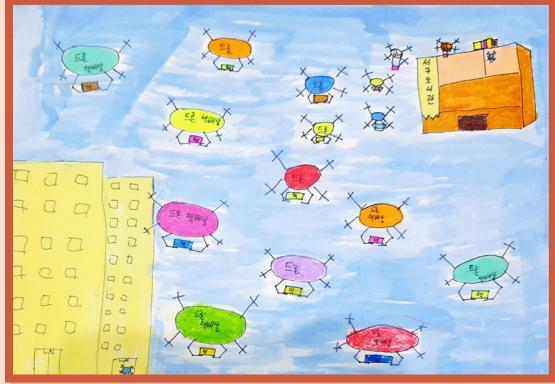
권*안_로봇 도서관



권*나(가정초4)_수중 미래 도서관



김*린(가정초4)_무인 자동화 도서관



김*하_드론이 책을 배달해요



김*나_IT 미래 도서관



김*빈(인천 부곡초2)_숲속 도서관을 즐겨요



김*희(청일초3)_꿈이 자라는 도서관



김*정_우주 도서관



김*진_로봇이 도와줘요



박*민_미래의 신기한 도서관



박*윤_숲과 바다의 도서관



박*은(가정초4)_로봇 도서관



박*유(석남초1)_숲속 도서관



이*민(경서초4)_미래 도서관



임*민_떠 있는 도서관



성*서_A.I.가 도서관을 발전시키다



이*아(가정초4)_움직이는 도서관



최*은_우주 도서관



황*산(가좌초4)_디지털도서관

「서구도서관 개관 30주년 기념 자료집」에 도움을 주신 서구도서관
연(緣)서포터즈 김영아, 안나경, 윤인옥, 정길숙, 정미례, 정연욱 님께 감사드립니다.

**서구도서관 개관
30주년 기념 자료집**

발행일 2021년 9월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334번길 45

전 화 032-585-7100

팩 스 032-578-0863

기 획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

제 작 바람꽃출판사